

“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박주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근거 설치 의무 미이행... 강제금 부과 받고도 여전”

수협중앙회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주장됐다.

24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사진)이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에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560명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해왔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53개소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로 미이행률이 13.3%이며, 수협중앙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미이행기업 13.3%에 속해있다.

박 의원은 “수협은 어촌·어민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다. 수협이 법을 위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의 2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외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협의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천 6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협의 여성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8401억원, 연간 매출액 2조106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지부족일 뿐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로운 천년의 비상...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출범

정동영 “KTX 황성역 포함 3개 역사 철골부분 공사 ‘부실’”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공사로 추진된 KTX 원주~강릉간 철도 노선 중 황성역을 비롯한 3개 역사가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철골부분 공사가 부실공사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사진)은 24일 대전시 철도공동사용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KTX원주~강릉간 철도 황성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총 사업비 132억원이 들어간 황성역사는 군데군데 부실공사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며 역사의 주 골격인 H빔 중간이러블이 거, 드림작업이 필요한 골조에 산소 용접기로 구멍을 뚫어 이음새를 마무리 하는 등 부실공사 내역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성역사 신축공사의 철골(역사 뼈대)은 내진 강도 시험에 통과되고,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정상적인 철골을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기일 단축, 재료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내진 강도가 부실한 철골 사용, 잘려진 철골을 부실 용접해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고, 또한, 황성역사의 이러한 부실시공이 만연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발주처인 강원철

도시설공단, 하청업체인 H건설, Y산업 및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업체 조차 이를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특히, 강재의 이음과 접합을 위한 강관의 천공작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천공기(드릴)로 작업을 해야 하며 산소용접기를 사용한 강관 천공은 절대로 금하고 있음에도 산소용접기를 사용한 강관 천공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철 기둥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볼트의 경우, 반드시 규격에 맞는 지 나면서 기둥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산소용접기 강관 천공은 매우 위험한

공사기법이다.

또한 황성역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6개 역사 신축공사를 관리 감독하던 책임자인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모 부장이 강릉역 올림픽 조형물 철거사건으로 지난 7월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실이 있는 만큼, 부실공사를 실행한 공사업체·감리업체·발주처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동영 의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이 같은 부실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형 건축법 등에 따르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처벌할 수 있으며, 부실공사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6일 구속심사

法, 영장 발부할까?

작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근무... 재판 개입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레 구속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전날 검찰은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 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임종헌 전 차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있어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직속상관은 차한성·고영한·박병태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도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이달 초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하태경, 전원책 겨냥 “보수 대공멸 주범 될 수도”

“태극기부대 주도하는 박사모는 ‘박통’ 모시는 개인숭배집단

전원책, 극우세력 ‘물지마 대야합’ 추진... 보수 완전 죽일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4일 ‘태극기부대’를 옹호하고 있는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겨냥해 “보수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 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책 위원이 연일 태극기부대도 보수다. 그저 나리사라는 사람들이 뿐이라며 옹호한다. 김병준 위원장도 태극기부대가 보수라고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태극기부대는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이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즉 박통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숭배집단에 불과하다”면서 “태극기부대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이 나라 걱정도 없겠지만, 태극기부대를 주도하는 박사모 같은 조직들은 박통 특정인을 대한민국의 국가보다 더 상위 가치에 두고 특정인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 숭배집단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집단을 보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보수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명백히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반(反)혁명세력 도전”이라며 “전원책은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태극기 극우세력 ‘물지마 대야합’을 추진해 보수를 완전히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1

태권도원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시범공연

고년도 신기술과 품새, 그리고 격파가 어우러진 공연 1일 2회 무료 상설 공연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에도보통자를 비롯한 태권도 유물과 전문자료 전시 세계 최초 태권도 전문 박물관

T1경기장

세계 최초 최고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 태권도 경기 단체행사, 훈련 등 다목적 시설(4,571석)

전망대

백운산 해발 560m에서 전북·충북 경복의 파노라마 뷰 조망 모노레일, 백운리매 운영

태권도원 연수시설 (265 객실, 최대 1,400명 수용)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T: 063-320-0114 http://tkdwon.kr